

프로는 주차장도 필드처럼... KIA 스프링캠프 개막



KIA 타이거즈 최형우(오른쪽부터), 황대인, 나주환이 스프링캠프가 시작된 1일 챔피언스필드 지하주차장에서 러닝을 하고 있다. /김여울 기자 wool@

코로나 영향 30년만의 국내 캠프... 날씨 변수에 챔피언스 필드 실내 훈련

‘호랑이 군단’이 2021시즌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KIA 타이거즈가 1일 챔피언스필드에서 2021 스프링캠프 첫 일정을 소화했다.

오전 11시 30분 투수조가 먼저 미팅을 하고 새 시즌을 위한 기지를 불태웠다. 오후 12시 30분에는 야수조들이 캠프 첫날을 시작했다.

1일 훈련을 시작한 KIA는 7일 캠프 첫 휴식일을 보낸다. 그리고 이후 4일턴으로 훈련을 진행할 계획이다.

윌리엄스 감독은 초반 훈련에 대해 “날씨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다. 일단 지난해 마무리 캠프 때 체력프로그램을 했는데 초반 훈련은 이에 대한 연장선상으로 보면 된다”며 “필드에서 활동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대부분 실내에서 한정된 훈련을 하게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마무리캠프와 비시즌 동안 중점적으로 다룬 ‘체력’에 초점을 맞춰 초반 몸상태를 준비하겠다”는 게 윌리엄스 감독의 구상이다.

윌리엄스 감독은 “(체력)프로그램이 각자에 맞춰 준비가 됐다. 3개월 만에 극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는 없지만 개인에 맞춘 부분을 잘 보완해서

은 것 같다”고 평가했다.

몸 만들기에 집중하는 KIA는 9일부터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 예정이다. 변수는 역시 ‘날씨’다.

윌리엄스 감독은 “필드 훈련은 아마 날씨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눈이 많이 왔다 녹으면서 경기장 상태가 좋지 않다”며 “처음 한국에서 캠프를 하는 것이라 맞춰나가야 하는 부분이 있다. 볼펜이 9일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잡혀있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밖에서 할 예정이다. 날씨 상황에 따라 맞춰가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첫 훈련이 진행된 이날, 다행히 비교적 따뜻한 날씨 속 비가 내리지 않아 선수들은 그라운드와 나와 가볍게 캐치볼을 하면서 ‘국내 캠프’를 진행했다.

최근 내린 눈으로 그라운드가 젖어있는 만큼 야수조들의 러닝 장소로는 지하 주차장이 선택됐다.

야수들은 주차장에서 전력 질주를 한 뒤 외야에서 캐치볼을 소화했다. 이날 처음 발표된 캠프 명단에서 4자리가 비었다. 광주캠프에서 시즌을 준비할 예정이었던 투수 전성현이 지난 시즌 막판 입었던 오른쪽 어깨 부상에서 완벽하게 벗어나지 못

하면서, 재활조에서 차분하게 페이스를 끌어올리게 됐다.

외국인 선수들도 첫날은 함께 하지 못했다.

하지만 지난 18일 나란히 입국했던 프레스턴 터커와 다니엘 멘덴이 자가격리 해제 전 진행된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으면서 2일 선수단에 합류한다.

애런 브룩스도 검사결과 이상이 없다면 6일 캠프를 시작할 전망이다.

모든 게 새로운 국내 캠프라 변수는 많지만, 윌리엄스 감독은 ‘포스트시즌’을 목표로 KBO리그에서의 두 번째 시즌을 준비할 예정이다. 지난 시즌에도 강조했던 ‘꾸준함’이 또 다른 목표이자 포스트시즌을 위한 키가 될 전망이다.

윌리엄스 감독은 “올 시즌 목표는 ‘포스트시즌’으로 지난해와 똑같다. 지난 시즌 초반에 보여준 것처럼 꾸준함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전반기에 잘 싸웠는데 그것을 이루지 못해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 처음 1군, 풀타임을 뽐낸 선수들이 많이 있어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며 “계획한 것을 어떻게 실행하느냐에 따라 시즌 결과가 달라진다. 지난 시즌에도 꾸준함을 많이 언급했는데 올해도 최종 목표다. 꾸준함을 유지해야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꾸준함’을 바탕으로 한 시즌 준비를 예고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경쟁 우선·FA·트레이드까지 ‘양현종 빈자리’ 채우겠다

KIA 윌리엄스 감독

임기영·이민우 이닝 무제한 활용
김유신·김현수·이의리 등 기대주

‘양현종 빈자리’ 어떻게든 채운다. KIA 타이거즈가 스프링캠프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1일 챔피언스필드에 다시 모였다. 새로운 시작날 가장 취재진의 관심을 끈 이는, 공교롭게도 캠프에는 없는 양현종이었다.

양현종은 지난 30일 최종적으로 해외진출 의사를 밝히면서 올 시즌 KIA 구상에서 빠졌다.

다시 만난 선수 중 누가 가장 보고 싶었느냐는 질문에 윌리엄스 감독은 “양현종의 이름을 꺼냈다.

윌리엄스 감독은 “양현종을 더 오래 보기를 바랐다. 하지만 시즌이 끝나고 난 뒤 야구라는 게 서로 헤어지기도 한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앞서 양현종과 계속 이야기를 했었다. 비시즌에 경기장에서 훈련할 수 있도록 하기도 했다. 자신과 가족, 미래 등을 위한 결정은 본인에게 달려있다. 정말 쉽지 않은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결정하는데 많이 힘들어 했다”며 “미국 야구 상황과 코로나19 등으로 정말 좋지 않은 타이밍이다. 그러나 도전을 하기로 했다. 모든 이들은 꿈을 좇으며 산다. 함께 할 수 없어서 아쉽지만 응원해줄 생각이다”고 언급했다.

당연히 선발 구상에 관한 이야기도 이어졌다. “다양한 후보를 보고 있다”며 내부 경쟁을 먼저 언급한 윌리엄스 감독은 “이제 막 양현종의 거취가 결정됐기 때문에 논의를 하고 있다. FA 라든가 트레이드 등도 생각할 수 있는 점이다. 모든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내부 경쟁’과 함께 FA와 트레이드도 언급한 윌리엄스 감독. 조계현 단장은 ‘육성’에 좀 더 무게를 뒀다.

조 단장은 “오히려 양현종이 미국 진출로 마음을 먹으면서 어린 선수들, 준비된 선수들에게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며 “캠프 시작했으니까 경쟁을 통해서 체력·기술·멘탈적으로 눈에 띄는 선수가 우선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기회를 살리는 선수가 있을 것이다. 실패와 성공이 거듭되더라도 성장을 통해 빈자리를 메꾸는 게 가장 바람직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안정적으로 이닝을 소화해준 양현종의 부재가 아쉽지만, KIA의 기대주들은 있다.

조 단장은 상무에서 군 복무를 마친 좌완 김유신, 지난 시즌 막판 선발로 가능성을 보여준 우완 김현수, ‘무키’ 좌완 이의리·장민기 우완 박건우 등을 기대주로 언급했다.

윌리엄스 감독도 ‘경험’을 더한 선수들로 마



운드를 다질 계획이다. 새 얼굴도 유심히 지켜보기 위해 광주캠프 명단을 구성했다.

지난 시즌 선발로도 투입된 김현수와 장현식도 후보다.

윌리엄스 감독은 “(선발후보분류해줬던) 지난해와 비슷하게 운영될 것이다. 김현수와 장현식은 합병 캠프에 있지만, 선발로 보고 준비를 한다. 합병과 프로그램은 똑같다. 전에 못 본 선수들, 신인 선수들을 보기 위해 이들을 광주에서 훈련하도록 했다”며 “지나해에는 캠프가 대규모로 진행됐지만, 올해는 장소 제한도 있다. 합병과 계속해서 선수들 간의 이동이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또 “임기영과 이민우도 지난해와 달리 이닝 제한 없이 활용할 수 있고, 그럴 준비가 돼있다”고 설명했다.

윌리엄스 감독은 멘덴에 대한 기대감도 보였다.

그는 “멘덴은 지난해 모든 구단이 영입 리스트에 올려놓았던 선수다. 팔꿈치 문제가 있었지만 지난해 다시 공을 던졌고, 좋은 모습 보여줬다. 예전 팀에서 봤고 다른 이들을 통해서 물어보기도 했다”며 “트리플A에서는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줬고, 메이저리그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준 선수다. 오를랜드에서는 브룩스처럼 스윙맨, 5선발 역할을 해줬는데 몸 상태도 좋고 선발을 위해 어떤 것을 해야 하는지 잘 아는 선수다. 지난해 많이 던지지는 못했지만, 선발로 준비할 것을 잘 알고 있다. 좋은 모습 보여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KIA는 지난 시즌에도 ‘에이스’ 브룩스의 갑작스러운 귀국으로 시즌 막판 임시 선발진을 가동한 적이 있다. 위기 속에서 김현수의 가능성을 발견하는 등 성과도 있었다.

“젊은 투수진”을 보유한 KIA가 전화위복의 시즌을 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권순우가 1일 호주 멜버른에서 열린 남자프로테니스(ATP) 투어 그레이트 오션 로드오픈 단식 본선 1회전에서 안드레이 마르틴을 상대로 경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순우, 새해 첫 승전보

멜버른 ATP 투어 2회전 진출

권순우(97위·당진시청)가 2021시즌 첫 승리를 수확했다.

권순우는 1일 호주 멜버른에서 열린 남자프로테니스(ATP) 투어 그레이트 오션 로드오픈(총상금 32만775 달러) 대회 첫날 단식 본선 1회전에서 안드레이 마르틴(102위·슬로바키아)에게 2-1(6-3 6-7(5-7) 7-6(7-4)) 승리를 거뒀다.

올해 1월 미국 플로리다주 델레이비치에서 열린 ATP 투어 델레이비치오픈(총상금 34만9530 달러) 1회전에서 서배스천 코르다(88위·미국)에게 0-2(4-6 4-6)로 패했던 권순우는 호주오픈 전초전으로 열린 이번 대회 1회전 관문을 통과했다.

1세트를 선취한 권순우는 2세트 게임스코어 3-0으로 앞서다가 추격을 허용, 타이브레이크 끝에 3세트까지 치르게 됐다. 3세트에서도 타이브레이크에 들어간 권순우는 2시간 38분 접전에서 이겼다. 권순우는 미오미르 케츠마노비치(42위·세르비아)와 16강 진출을 다룬다.

/연합뉴스

무등산 정기가 가득한 ‘광주 FC 새 유니폼’



광주FC가 2021시즌 유니폼을 선보였다. 광주는 1일 새롭게 디자인한 유니폼을 출시하고 온라인 판매에 들어갔다.

팀의 주색인 노란색을 활용한 홈유니폼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빛과 광주의 상징인 무등산 서석대를 스트라이프 형태로 형상화해 강인함과 단정함을 표현했다.

깔끔한 화이트의 원정 유니폼은 구단의 상징인 주작의 날개를 패턴화해 세련미를 더했다.

골키퍼 홈 유니폼은 기존 블루 컬러가 아닌 블랙으로 강인함과 고상함을 표현했다. 원정 유니폼은 여심을 저격할 핑크로 제작했다.

유니폼 전면부엔 ‘GWANGJU FOOTBALL CLUB’이 들어간다.

좌측 하단부에는 광주축구전용구장을 그래픽화한 태그(TAG), 목 뒷면엔 기계와 발전을 뜻하는 은행나무(광주시 시목)의 잎을 넣었다. 우측엔 시정구조, 좌측 소매에는 새로운 K리그1 패자가 부작된다.

한편 유니폼은 오는 22일까지 네이버 스토어팜에서 사전 구매할 수 있다. 사전 주문시 20% 할인 혜택과 광주 마스크가 주어진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